

아파트 커뮤니티에서의 거주자 감정지표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n Development of Residents Emotion Index in Apartment Community

박지혜* 조성희**
Park, Ji-Hye Cho, Sung-Heu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suggests the emotion of residents as indexes in Korean housing environment for providing a fundamental guideline for precise dwelling social science and indicating the view for understanding of residents in Korean housing culture in Korea. So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of residents emotion indexes in housing environment and community.

For this study, survey and depth-interview method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The subjects were 514 housewives living in apartments. The statistical methods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mean,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18.0 progra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Pride of neighborhood, pride of apartment complex and sense of superiority were important factors for residential satisfaction. 2)Conspicuous image of neighbors and active contact with neighbors were important factors for their neighborhood in the apartment complex

The results develop the housing environment evaluation indexes in community through the contextual understanding of space · emotion · society.

Keywords: emotion, apartment community, pride, sense of superiority, expectations, conspicuous image, contact, society, culture,
주요어: 감정, 아파트 커뮤니티, 자부심, 우월감, 기대감, 과시적 이미지, 접촉, 사회, 문화,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주거환경이 지향해야 할 새롭고 다양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녹색성장에 따른 주거환경(건강주택 및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물리적, 사회적 주거환경에서의 커뮤니티의 활성화 전략,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 등의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문제를 포함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거주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거주자 실천 과제의 제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발전을 위한 참여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천과 인식의 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왜 하지 않을까”라는 행동의

사회·문화적 원인에 대한 거주자 이해보다는 “하여야 한다”의 정책 제시 및 정량적 평가가 거주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의 사회학적 측면에서 삶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이해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거주자의 주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주거학 뿐 아니라 사회학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Barbalet(1998)은 개인의 주관적 측면인 다양한 “감정”의 범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사회구조의 핵심 측면을 검토하려 하였으며, Illouz(2003)는 ‘감정 자본주의’라는 저서를 통해 “감정”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이슈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은 사회적 행동을 “안”으로부터 이해하고자 하는 해석학적 사회학의 측면으로 행동의 감정적 색조와 실제로 무엇이 행동을 추동하는가에 주목한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감정”은 공간, 사회, 감정이라는 맥락적 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

*정회원(주거자,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노인생활환경연구소, 전임연구원, 이학박사

**정회원, 부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10-0024968).

구의 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거환경에서의 거주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거사회문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아파트 주거환경이라는 공동체의 삶에서 거주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 감정지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감정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욕구에 대한 자아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감정은 사회적 결과이기도 하고 사회적 원인일 수도 있다고 보았으며 과거 합리성과 대비되어지는 감정은 이성과 대립적 존재일 뿐 아니라 이성을 지원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Barbalet ;1998).

엄묘섭(2009)은 감정은 문화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에 침투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Illouz(2003)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거래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상품에 숨겨진 감정임을 지적하고 이로써 상품의 디자인, 이미지 등의 정서적 특징이 더 주목받고 있는 사회현상을 해석하였다. 또 “감정”이란 문화 단위가 사회단위로 감정이 표현되는 장소는 구체적·즉각적 관계이되 항상 문화적·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라고 하였다. 따라서 감정은 사회를 이해하는 기본요소이며, 문화·사회적으로 다른 반응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Nisbett(2003)은 사회심리학 연구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는 사람들의 사고의 과정과 사고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서양과는 다른 동양의 “더불어 사는 삶”과 “맥락을 중시하는 사고”를 지적하면서 서로 다른 상이한 생태환경은 서로 다른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체제를 초래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 문화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감정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환경의 평가는 거주자의 문화적 특징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정서적 특징인 디자인, 이미지에 대한 “감정”의 중요성은 주거환경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주거환경에서 대표되어지는 주택 상품인 아파트는 그것이 나타내는 이미지에 따라 주거만족도와 주거선택이 달라짐을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으로서의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의 창출은 현대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주자의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조성희 외(2006; 2009), 박지혜(2008)의 연구에서 보여지는 프라이드(자부심), 프라이머시 행태 특성(표현, 친밀 등)은 아파트라는 공동체적 특수성을 가진 한국주거문화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요소의 한 측면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으며, 한국의 주거환경과 거주자를 이해하는 데

중요 요소가 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주거환경에서의 거주자의 감정을 공간, 사회, 감정의 관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공간과 사회와의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거주자 감정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감정의 중요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주거환경에서의 거주자 감정을 살펴보았다.

또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파트 커뮤니티에서의 거주자 감정 및 행태를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화하였다. 사례연구는 이론적 고찰에서 논의된 감정 속성에 근거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구조적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총체적 만족도로써의 아파트 주거환경만족도와 사회 환경 만족도로써의 아파트 단지 내 이웃관계 만족도를 5점 척도(매우 불만; 1, 매우 만족; 5)로 구성하였다.

총체적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아파트 단지 및 커뮤니티에 대한 만족도 14문항(주택 규모, 주택의 경관조망, 내부소음, 외부소음, 아파트 세대수, 아파트 단지의 배치 형태, 동과 동사이의 거리,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주차공간, 단지 내 휴식공간, 단지 내 녹지 공간, 단지 내 이웃관계, 단지 방법 및 안전상태, 아파트 외관 디자인)과 거주자의 감정 지표 7문항(거주 동네에 대한 자부심, 거주 아파트에 대한 자부심, 거주 아파트 인지도, 거주 동네의 삶에 질에 대한 우월감, 거주 동네의 발전 기대감, 단지 내 이웃수준에 대한 과시감, 동네 수준에 대한 과시감)¹⁾의 21개 문항²⁾을 5점척도로 구성하였다.

이웃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거주자 감정 지표 7문항과 적극적 접촉에 의한 친교행태(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을 청할 이웃이 있다) 1문항, 소극적 접촉에 의한 친교 행태(이웃과 인사정도는 하고 지낸다) 1문항, 적극적 친교 태도(이웃과 자주 접촉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웃끼리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2문항의 총11개 문항³⁾을 5점척도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시 소재 아파트 단지의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추출은 각 구별로 조사요원을 투입, 일대일 면접 방식과 해당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학부모 통지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부산시 아파트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 Cronbach-α 값 : .877

2) Cronbach-α 값 : .914

3) Cronbach-α 값 : .805

본조사를 위해 총 645부를 배포하여 590부를 회수(회수율91.5%)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한 자료를 제외한 51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가구의 가구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변인으로 주부연령, 주부학력, 주부직업, 가족생활주기(막내자녀기준), 거주 가족수, 가족구성, 가구월평균소득,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전용면적기준), 아파트 단지규모, 거주기간을 조사 분석하였다(표1).

표 1. 조사대상의 가구 및 거주 특성

항목	세부항목	N	(%)
주부 연령 M=45.8 (SD=9.6)	30대 이하	144	(31.0)
	40대	162	(34.9)
	50대	107	(23.1)
	60세 이상	51	(11.0)
	합계	464	(100.0)
주부 학력	고졸 이하	206	(44.7)
	대졸 이상	254	(55.3)
	합계	460	(100.0)
주부 직업	취업주부	148	(36.0)
	주부	263	(64.0)
	합계	411	(100.0)
거주 가족수 M=3.7 (SD=0.9)	2인 이하	59	(11.8)
	3명	98	(19.6)
	4명	284	(56.9)
	5명 이상	58	(11.6)
	합계	499	(100.0)
가족 생활주기 (막내자녀기 준)	미취학기까지	111	(22.5)
	초등교육기	109	(22.1)
	중고등교육기	87	(17.6)
	성인기	186	(37.7)
	합계	493	(100.0)
가족 구성	핵가족	432	(87.1)
	확대가족	22	(4.4)
	부부	42	(8.5)
	합계	496	(100.0)
가구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38	(28.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39	(28.4)
	4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154	(31.4)
	700만원 이상	59	(12.0)
	합계	490	(100.0)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27	(85.6)
	타가	72	(14.4)
	합계	499	(100.0)
주택 규모 (전용면적 기준)	85㎡ 미만	121	(24.0)
	85㎡	219	(43.4)
	85㎡ 초과	165	(32.6)
	합계	505	(100.0)
아파트 단지 규모 (세대수)	300가구 미만	52	(10.7)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107	(22.0)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116	(23.8)
	1000가구 이상 1500가구 미만	70	(14.4)
	1500가구 이상	142	(29.2)

	합계	487	(100.0)
거주기간 M=7.2 (SD=5.5)	3년 이하	149	(31.4)
	4년 이상 9년 이하	177	(37.3)
	10년 이상	148	(31.2)
	합계	474	(100.0)

* 합계 가구수는 분석대상 514가구 중 무응답 가구를 제외한 숫자임

조사대상 가구의 주부연령은 평균 45.8세(SD=9.59)로 40대가 34.9%, 30대 이하가 31.0%의 순으로 40대의 비중이 높았다.

학력은 대졸 이상 55.3%, 고졸 이하 44.7%로 나타나 주부의 과반수 이상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64.0%로 취업주부의 비율보다 높았다.

가족생활주기는 전반적으로 성인기의 비율이 높았다. 거주가족수는 평균 3.7명(SD=0.9)이었으며, 4명의 비율이 5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 소득대는 400만원 이상이 43.4%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조사되었다.

가족구성형태는 87.1%가 핵가족으로 핵가족이 아파트 거주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의 비율이 85.6%로 타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규모(전용면적기준)의 경우 85㎡ 미만이 24.0%, 85㎡이 43.4%, 85㎡ 초과가 32.6%로 나타나 85㎡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이 가지는 전용면적 85㎡의 비중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단지규모(세대수)는 주택건설촉진법(현주택법)에 근거한 부대복리시설기준의 근거가 되는 세대수에 근거하여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23.8%),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22.0%), 1500가구 이상(29.2%)의 순으로 나타나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단지 보다는 부대복리시설을 갖추는 중대형규모의 아파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 아파트 거주기간은 평균 7.2년(SD=5.5)로 나타났으며, 4년 이상 9년 이하가 37.3%, 3년 이하가 31.4%, 10년 이상이 31.2%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2. 주거환경만족도와 이웃관계만족도 영향요인

본 절에서는 주거환경만족도와 단지 내 이웃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중다회귀분석(변수투입방법 : Stepwise)을 실시하여, 중요한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아파트 주거환경 만족도 영향요인

본 항에서는 총체적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련된 21개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2).

분석 결과, 거주 동네에 대한 자부심, 주택규모 만족도, 거주 아파트에 대한 자부심, 거주 동네의 삶의 질에 대한 우울감, 아파트외관디자인 만족도, 주택의 경관조망만족

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표 2. 아파트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의 영향력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베타	표준오차	베타		
(상수)	.103	.148		.696	.487
거주 동네에 대한 자부심	.336	.051	.335	6.599	.000
주택의 규모 만족도	.170	.039	.154	4.385	.000
거주 아파트에 대한 자부심	.165	.046	.151	3.583	.000
거주 동네의 삶의 질에 대한 우월감	.181	.050	.181	3.626	.000
아파트외관디자인만족도	.087	.034	.089	2.583	.010
주택의 경관조망만족도	.068	.032	.075	2.213	.034
F	100.310***				
R2	.554				
수정된 R2	.549				
종속변수 : 아파트 주거환경 만족도 *** p< 0.001					

이는 현재 아파트 개발 경향에서 보여지는 외관디자인의 강조와 경관조망에 대한 거주자 선호 결과와 일치하며, 이전 연구들에서 보여진 한국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의 과시적 특성이 나타난 자부심, 상대적인 우월감 등의 거주자 감정지표가 실제 아파트 주거환경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아파트 단지 내 이웃관계 만족도 영향요인

본 항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이웃관계 만족도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을 파악하였다(표3).

표 3. 아파트 내 이웃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의 영향력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베타	표준오차	베타		
(상수)	.552	.146		3.769	.000
단지 내 이웃 수준에 대한 과시감	.609	.033	.619	18.657	.000
적극적 접촉에 의한 친교 행태 (도움을 청할 이웃 있음)	.103	.024	.146	4.252	.000
적극적 친교 태도 (친밀한 이웃관계 유지 중요함)	.102	.028	.124	3.672	.000
F	150.969***				
R2	.478				
수정된 R2	.475				
종속변수 : 아파트 내 이웃관계 만족도 *** p< 0.001					

분석 결과,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단지 내 이웃 수준에 대한 과시감,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을 청할 이웃이 있다는 적극적 접촉에 의한 이웃 친교 행태, 이웃과 자주 접촉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친교 태도가 유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박지혜 외(2006)의 이웃관계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로 적극적 친교 행태가 실제적인 이웃관계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과 동시에 단지

내 이웃 수준에 대한 과시감 즉 이웃의 수준이라는 상징적·지위적 표현 특성이 이웃관계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아파트 주거환경 만족도와 아파트 내 이웃관계 만족도에서 자부심, 우월감, 과시감 등의 거주자 감정지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거주자 감정지표는 커뮤니티 활성화, 거주자 참여디자인, 주거만족도 증대를 위한 평가지표로 구체화할 것이며, 주거환경의 개선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환경에서의 거주자 감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아파트 커뮤니티에서의 거주자 감정지표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거환경 및 커뮤니티 평가에 활용 가능한 거주자 감정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 문헌

1. 박지혜 (2008). **아파트 거주가구의 프라이버시 인식유형 및 행태조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2. 박지혜·조성희 (2006). 아파트 거주자의 이웃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2(추계)**, 472-475.
3. 엄묘섭 (2009), 감정의 시대: **문화와 집합행동. 문화와사회 제6권**, 7-51
4. 조성희·박지혜 (2006), 아파트 단지공간구성에서 차별화 계획요소에 대한 거주자 만족도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계, 22(12)**, 45-29.
5. 조성희·박지혜 (2009). 아파트 거주가구의 프라이버시 조절 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계, 25(7)**, 127-138.
6. Barbalet J.M. (2007). **감정의 거시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박형신, 정수남 역). 서울: (주) 일신사. (원저 1998 출판)
7. Nisbett R.E. (2004).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생각의 지도** (최인철 역). 경기도: 김영사. (원저 2003 출판)
8. Illouz E. (2010). **감정 자본주의** (김정아 역). 경기도 : 돌베개. (원저 2007 출판)